

한일정상회담 (09.04.01) 주요 내용

2009.10.22

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. 양 정상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UN 차원에서 대응하는데 공감했다.

□ 한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소 다로(麻生太郎)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 (2009.04.01)
- 양국 정상은 국제 경제·금융위기 대처·북핵문제·부품소재 협력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

□ 협의 내용

-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
 -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합의
 - * 이로 인해,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대응 방안이 국제사회의 공조 재확인
- 국제 경제와 금융위기 대처에 대한 합의
 -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

설정하는 등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, 부실자산 정리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

○ 부품소재 협력에 대한 합의

- 오는 16~17일 개최되는 ‘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설명회’와 15~17일 개최되는 ‘한일 경제인 회의’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부품소재 분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

□ 성과

○ 북핵 등 대북정책 전반 조율 성과

- 일본 총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한 새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, 이 대통령이 이에 공감을 표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

○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타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경제위기 해법 도출의 조율사 역할을 자임했음

<참고자료>

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

‘한·일 정상회담...’북 로켓’ UN 대응 논의’ (매일경제 09.04.02), ‘한일 부품소재 협력 확대 합의’ (이데일리 09.04.02)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